아야드 악타르의『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차이와 차연

홍은숙*

<차 례>

1. 들어가며: 새로운 타자의 부상
2.『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차이
3. 자리나의 소설쓰기에 나타난 전복과 극복의 내러티브
4. 나오며: 차이 너머 차연에서의 인종 상상계

【국문초록】

미국 소수 민족 극작가 아야드 악타르는 무슬림 관습을 서사화하는데 있어서 재현의 정치학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악타르가『불명예』에서 무슬림 미국인과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미국인들 사이의 긴장을 무대에 올렸다면,『본질과 인공』에서는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들 사이의 긴장을 무대에 올린다.『본질과 인공』이 문제적으로 제시하는 무슬림 미국인은 '미국인의 타자'이며 '무슬림의 타자'이다. 미국인들이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을 타자로 바라보듯,『본질과 인공』의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은 무슬림 미국인을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조교수

타자로 바라본다. 타자로서의 무슬림 미국인은 주류 백인 미국인의 타자이며 동시에 미국 무슬림 공동체 내부에 있는 외부이며, 무슬림과 미국인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 글은 『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미국에 사는 무슬림'에서 '무슬림 미국인'으로의 변화 과정을 '차이'와 '차연'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악타르는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성 정치학과 무슬림 성 정치학을 교차하면서, '무슬림 미국인의 결혼 풍습'과 '예언자 무함마드가 남긴 결혼 풍습'으로 미국 내 무슬림들의 '차이'를 무대에 올린다. 『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차이에 대한 인식은 이항대립의 체계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희곡 『본질과 인공』의 주인공 자리나는 소설 『본질과 인공』 쓰기를 통해 무슬림 관습의 기원을 찾아나서 경직된 전통을 느슨하게 만들고 전통에 씌워진 덮개를 벗겨내려고 한다. 자리나는 무슬림 관습의 기원과 미국 내 무슬림 관습의 현전을 교차하는 데 있어서,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타자의 주체성과 특이성에 대한 현전의 경계 그리기를 시도한다. 자리나의 경계 그리기는 경계 구축이 아니라 경계에 빗장을 열어놓는다. 경계 바깥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출구는 바로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는 곳 즉 차연의 가능성, 새로운 인종계 상상계로의 빗장을 연다.

주제어: 무슬림 타자, 『본질과 인공』, 아야드 악타르, 정체성, 차이, 차연, 특이성

1. 들어가며: 새로운 타자의 부상

아야드 악타르(Ayad Akhtar)에게 있어 '무슬림 미국인'(Muslim American)은 단순히 '미국에 사는 무슬림'(Muslim in America)을 의미하지 않는다. 악타르 극에 나타난 무슬림 미국인은 미국 사회에서 관심 영역에 들기 위해 그리고 다인종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미국적 보편성'과 '무슬림 특수성' 사이에서 깊은 회의 과정을 겪으며 열린 동일성을 추구하는 인물들이다. 악타르는 『본질과 인공』(*The Who and the What*, 2014)에서 정체성(identity)과 특이성(singularity) 사이의 회의 과정을 서사 형식으로 풀어낸다.

악타르가 『불명예』(*Disgraced*, 2012)에서 무슬림 미국인과 다양한 인종적/신앙적 배경을 지닌 미국인들 사이의 긴장감을 재현 무대에 올렸다면, 『본질과 인공』에서는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들 사이의 긴장감을 재현 무대에 올린다. 『본질과 인공』이 문제적으로 제시하는 무슬림 미국인은 '미국인의 타자'이며 '무슬림의 타자'이다. 미국인들이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을 타자로 바라보듯이, 『본질과 인공』의 미국에 사는 다양한 무슬림들은 무슬림 미국인을 새로운 타자로 바라본다. 타자로서의 무슬림 미국인은 주류 백인 미국인의 타자이며 동시에 미국 무슬림 공동체 내부에 있는 외부이며, 무슬림과 미국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주체성(subjectivity)의 문제 또한 야기한다.[1)]

악타르가 제기하는 새로운 주체성은 타자로 인식된 외부적 존재, 주변적 존재, 경계를 넘는 자, 내부에 있는 외부를 통하여 사유된다. 미국 내 '이중 타자'로서 무슬림 미국인은 기존 이슬람 전

1)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의해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자기 삶의 규범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주체성은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통과 관습의 경계를 찾아 그 경계를 넘어설 출구를 만들어 새로운 사유와 가치를 시도하여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새로운 주체는 타자로서의 주체이며, 기성 질서에 제외된 주체이며, 인종주의에 바탕을 둔 억압적 보편성과 자기 동일적 보편성에서 벗어나려는 타자다.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타자는 다인종 국가 공동체 미국뿐만 아니 라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 공동체에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타자에 대한 사유는 경계를 무력하게 하고, 닫힌 세계를 열어젖히는 가능성에 대한 사유이다. 『본질과 인공』의 주인공 자리나(Zarina)는 무슬림 관습의 기원으로 일컬어지는 사건들의 흔적(trace)을 찾아 나서면서 새로운 타자의 부상을 고하려고 한다.

세계의 지평에서 타자는 주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타자에게서 의식을 회수하고 주체 혼자서 의식을 독점한다면, 또한 타자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주체가 타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은 9/11 이후 강화된 감시 체계와 안보 시스템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는 닫힌 자기 동일성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닫힌 구조의 변동을 위해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 공동체는 주류 백인 미국인이라는 타자뿐만 아니라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타자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사유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 사는 무슬림'이 '무슬림 미국인'으로의 특이성을 갖추기 위한 '사유의 과정'이며 '구조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의 내적 구조 변화에 필수적 단계이다. 단 순한 외부가 아닌 내부의 외부라는 이들의 위치는 모호성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통일적 질서로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모호성은 새로운 주체성에 대해 사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동체의 실질적 변화는 타자의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사유에서 비롯

될 수 있으며, 전통적 공동체의 극복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모색과 함께 한다. 악타르는 무슬림 결혼 관습이라는 특별한 것에서 글쓰기를 시작해서 미국인으로서의 보편적인 것으로의 문을 열려고 한다.[2)]

2.『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차이

미국 내 이슬람 공동체는 전 세계 다양한 무슬림의 집합체이며, 이슬람 가치와 서구식 가치가 충돌하여 미국 내 소수자로서 그리고 타자로서의 주체성이 시험 무대에 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인들의 이슬람 개종 현상이 두드러지고, 전 세계 이슬람의 다양성이 몰려들어 형성된 미국 무슬림 공동체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본질과 인공』의 주요 내러티브인 성(gender)과 결혼 관련 무슬림 관습은 여전히 미국 내 보수적 무슬림 사회에서 남아 있지만, 이러한 무슬림 관습이 미국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악타르는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의 성 정치학과 무슬림 성 정치학을 교차하면서, '무슬림 미국인의 결혼 풍습'과 '예언자 무함마드(the Prophet Muhammad)가 남긴 결혼 풍습'으로 미국 내 무슬림들의 '차이'(différence)를 재현의 무대에 올린다. 자리나는 작품 속의 작품, 즉 희곡『본질과 인공』속의 소설『본질과 인공』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개인사가 무슬림 관습에 남긴 영향을 소설의 내러티브로 발전시킨다.

---

2) Ayad Akhtar, "The Particular and the Universal: An Interview with Ayad Akhtar," *The Who and the What*, Back Bay Books, 2014, p. 101.

막이 오르면서부터 자리나는 전통 결혼관을 유지하려는 동생 마흐위시(Mahwish)를 비아냥거리고, 무슬림 결혼 관습을 희화화하고, 더 나아가 여성과 성과 관련된 이슬람 전통을 희화화한다.

> 자리나 (마흐위시의 말을 가로막으며): 너와 하룬이 결혼하기위해서 나를 결혼시킬 필요는 없잖니.
>
> Zarina (Cutting her off): You don't need me to get married for you and Haroon to get married.[3)]
>
> 뱁티스타: 막내딸에게 절대 허락할 수 없다.
> 내가 맏이의 남편감을 구하지 전까지는
>
> Baptista: not to bestow my younger daughter
> Before I have a husband for the elder.[4)]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성 정치학은 오늘날 관객에게는 반향이 없지만, 미국 내 무슬림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내러티브이다. 르네상스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기성세대의 주장과 봉건적 사고방식을 완고한 노인의 고집으로 희화화한다. 두 딸들에게 관습적 성 정치학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주장은 난센스(nonsense)이며 극적 흥미를 유발하고 작품을 세태 풍자와 웃음을 자아내는 코미디(comedy)로 부상시킨다. 악타르의 『본질과 인공』은 『말괄량이 길들이기』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본질과 인공』은 성 정치학으로써 미국에 사는 무슬림과 무슬림 미국인의 차이를 재현하고, 더 나아가 다인종 국가 공동체

---

3) Ayad Akhtar, *The Who and the What*, Back Bay Books, 2014, p. 5. 이후 이 책의 인용은 페이지 수만 밝힘.

4) William Shakespeare, *The Taming of the Shrew*, Simon & Schuster, 2004, Act 1, Sc. 1.

에서 전통 이슬람주의가 특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말괄량이 길들이기』에서 성과 결혼은 난센스와 흥미유발의 내러티브가 되기에 충분하지만, 『본질과 인공』에서 성과 결혼 내러티브는 무슬림 관습의 기원을 회의하게 하고 결정하기 힘든 기원의 흔적을 찾아 나서게 한다.

자리나와 마흐위시는 성 역할에 있어도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마흐위시는 이슬람 전통을 고수하면서 편법을 찾고, 자리나는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충고한다. 마흐위시는 이슬람 전통을 비판하는 자리나를 '성질 나쁜 여자'(harridan 8)로 비판한다. 하지만 자리나는 약혼 중에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갖는 동생의 위선을 지적하고, 첫날밤 순결의 상징 때문에 항문성교를 받아들인 동생을 전통의 희생양으로 비판한다. 반면 자리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글을 쓰려고 하고, 전통을 눈가림한 항문성교가 아니라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위행위를 한다며 무슬림 관습에 이질적인 "성적 경험을 첨가한다."[5] 마흐위시는 자리나를 비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슬람 여성에 대해서 너무 유난을 떨기 때문에"('Cause everyone's always making a big deal about women in Islam. 11) 여성과 이슬람에 대한 자리나의 글쓰기에 관심을 갖는다. 마흐위시는 무슬림들에게 절대적 가치인 꾸란(Qur'an)을 신앙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자리나는 은유 차원으로 접근한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

5)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he Johns Hopkins UP, 1967, p. 167.

> 첨가되는 것은 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 밖에 있는 충만한 현전성에 첨가되기 때문이다. … 문화는 자연에 첨가되며, 악은 순수함에, 역사는 근원에 첨가되듯이, 자위행위는 이른바 성적 경험에 첨가될 뿐이다.
>
> What is added in nothing because it is added to a full presence to which it exterior. … ; masturbation comes to be added to so-called normal sexual experience; culture to nature, evil to innocence, history to origin, and so on.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 꾸란은 차이로 존재한다.

자리나와 마흐위시가 성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면, 아프잘(Afzal)과 엘리(Eli)는 결혼관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에서 무슬림 관습과 이슬람 전통을 고수하는 아프잘은 이슬람을 재현의 무대에서 희화화하려는 자리나와 갈등을 일으킨다. 아프잘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와야 하고, 커피 값은 연장자가 지불해야 하고, 맞선 남은 맞선 녀의 부모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등 결혼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슬림 관습을 지키려고 한다. 자리나의 맞선 남 엘리는 백인 미국인이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모스크를 운영하는 이맘(Imam)이다.[6] 엘리는 모스크에서의 '공동체 소속감'(the sense of community 17)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개종의 변을 밝히고, 무료 급식소 운영과 주거 환경 개선과 같은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다. 엘리는 이슬람 신앙에 절대적 복종을 한다기보다는 이슬람의 공동체 소속감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무슬림 미국인이다. 개종한 백인 엘리는 신앙관에 있어서 전통 이슬람 주의자와 차이를 보인다.

결혼관에 있어서 자리나 역시 아프잘과 차이를 보인다. 자리나는 아프잘의 뜻에 따라 백인 기독교인과의 결혼을 포기한 경험이 있지만, 아프잘이 신앙의 이름으로(For the love of God, 21) 결혼정보 회사에 대신 이름을 올려 결혼을 강행하려 하자 차이의 시련을 겪는다. 아프잘은 자리나의 특이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나에게 어울리는 남편감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이슬람 관습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프

6) '이맘'은 이슬람 율법에 지식 있는 무슬림으로, 모스크에서 이슬람 종교 행사를 주제 한다. 이맘은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생업이 있다. 이슬람에는 사제가 없다. 다만 이슬람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 '울라마'(Ulama)와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을 실천하는 '수피'(Sufi)가 이슬람 사회를 움직이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잘은 무슬림 관습대로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며, "사랑은 즉흥적 화학작용이 아니고(It was not an instant chemistry 28), 이슬람 결혼 관습에 "부족함이 없다"(I lacked for nothing 28)고 생각한다.

미국 내 무슬림들의 인식의 차이는 자리나와 엘리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리나와 엘리는 종교와 가치와 신념에 대한 세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공감대를 쌓는다. 엘리는 흑인과 무슬림 사이에서 성장했으며, 백인이지만 백인의 타자(outsider 32)로 살았다. 엘리는 말콤 엑스(Malcolm X)의 자서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특히 백인 식민권력의 역사를 읽고 백인들의 행태에 경멸감을 갖는다.

> 엘리: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엘리야, 너는 백인이야." 그리고 나는 "네, 저는 그럴 바엔 백인일 필요가 없겠어요."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
> Eli: At one point my grandmother says, very nicely: "But Eli, you're white." And I remember saying: "Yeah. Well, I don't have to be. Not like that." (34)

자리나는 이슬람 관습의 경계를, 엘리는 백인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고군분투하는 무슬림이지만, 이들 사이에도 이슬람을 바라보는 차이가 존재한다. 엘리는 백인 정체성에 혼돈을 느낄 때, "이슬람이 진정한 평등"(Islam is really about being equal 34)을 구현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지만, 자리나는 "백인 아이가 백인이고 싶지 않아서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었다."(White kid doesn't want to be white so badly, realizes the only way he can do it is to become Muslim 34)며 비판한다. 엘리는 이슬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프잘 못지않게 이슬람에 절대적으로 비판하는 자리나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자리나와 아프잘의 극단을 위험시 한다. 하지만 자리나는 무슬림 여성으로서 살지 않은 백인 무슬림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자리나가 경험한 이슬람과 엘리가 경험한 공동체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이슬람은 차이로 존재한다.

자리나는 결혼과 여성 문제에 천착하여 서구인들에게 회자되는 히잡(veil, curtain, Hijab)의 기원을 무함마드의 결혼식에서 찾는다. 자리나가 서구인에게 소개하는 히잡의 기원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과 맞닿아 있다. 무함마드가 일곱 번째 아내(Zaynab bint Jahsh)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 히잡 내러티브가 발생한다. 자리나는 예언자가 새로이 맞은 아내는 양아들의 아내였고, 그녀의 나체를 보고 겪었을 인간적 욕망과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한다. 자리나는 이들의 결혼 이야기는 꾸란에도 암시되어있다며 자신의 망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삶을 바탕으로 신성이 아니라 인간성으로서의 이슬람을 소설에 담으려고 한다.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인간적 모순과 욕망이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또한 그를 더욱 특출하게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서 소설쓰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기존의 무슬림 글쓰기는 무함마드의 인간적인 면을 제거하고 신비화했다고 비판한다.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제거된 인간적 욕망을 되살리려고 한다. 성과 결혼 관습의 기원이라 일컬어지는 것의 흔적을 찾아 나선 자리나는 결국 이슬람을 재현의 단계에 올려놓는다.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개인적 삶이 무슬림 관습으로 뿌리내렸다며 이슬람 관습을 서사 형식으로 바꾸면서 히잡의 기원을 흩뜨려 놓는다. 자리나는 결혼식 날 밤 예언가가 신부와 외부의 다른 남자 사이에 쳐 놓은 커튼을 히잡 관습의 기원으로 설정하여 전통에 씌워진 덮개를 벗겨낸다. 자리나는 “내 생각엔 꾸란은 유일신 보

다는 무함마드에게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I think it might make more sense to see the Quran more as coming from Muhammad than God 37)라며, 꾸란을 무함마드에게 발생한 인간적인 일들의 결과물로 설명하여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다.

반면, 엘리는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종교적 귀의(a sign of devotion 38)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판을 경계한다. 하지만 자리나는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과 종교적 귀의가 여성에게만 한정되는지 의구심을 품고, 단순한 종교적 헌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무함마드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비에 불과하다며, 자리나는 무함마드의 진정한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 나서려는 포부를 밝힌다. 그래서 자리나는 소설 제목을 『본질과 인공』(*The Who and the What* 39)으로 정하고, 무함마드의 진짜 모습과 만들어진 모습 사이의 차이를 재현하려고 한다.

아프잘 가족 상호 간의 차이는 극이 전개 될수록 확연해진다. 남성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보수적 무슬림 남성 아프잘은 자리나와의 차이 못지않게 같은 무슬림 남성이라고 믿었던 사위 엘리와 더 큰 차이를 경험한다. 엘리는 결혼지참금이 무슬림 관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프잘에게 지참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프잘은 돈과 경제는 남자들의 일이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다. 아프잘이 엘리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단지 관습에 따른 지참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는 남자들의 영역이고, 또한 남자가 여자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엘리에게 돈을 주려고 한다. 반면 엘리는 돈의 힘으로 남자의 힘을 과시한다거나, 돈의 힘으로 여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리나가 남편의 보호를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아프잘은 엘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사위에게 돈을 주고 사위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존경 받기를 원한다. 아프잘은 "자리나가 가져서는 안 될 힘을 가졌다"(She has the power. She has the power she shouldn't have 56)며 걱정한다. 특히 외부 모임에서 자리나가 남편에게 큰소리를 내고 자신의 뜻대로 피임을 하는 등 가정에서 자리나가 주도권을 잡으면 결국 자리나가 불행해진다는 확신을 갖고, 엘리가 강한 남성으로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주려고 한다.

> 아프잘: 남자답게 해요. 제압해야지. … 하지만 진실인즉, 남자에게 이로운 것이 여자에게도 항상 이로운 건 아니야. … 자리나는 숨 쉴 공간을 필요로 하지. 하지만 너무 많아서도 안 돼. 자리나는 필요 이상으로 자네한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 자리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자네가 자리나를 꺾어 놓을 때까지 그 애는 행복할 수 없어. 이 사람아, 자리나가 자네를 좌지우지하잖아.
>
> Afzal: Just be a man. Put it in her. … but the truth is, what's an advantage in a man isn't always in a woman. … She needs room to breaths. But not too much room. She has more power over you than she really wants. She can't help it. And she won't be happy until you break her, son. She needs you to take it on, man. (57)

아프잘은 자리나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미국 여성이 아니고 무슬림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무슬림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프잘이 생각하는 무슬림 여성은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남편의 성공을 통해서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아프잘은 엘리가 진정한 무슬림 남자가 되고 자리나가 무슬림

여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아프잘에게 있어 무슬림 결혼 관습은 신비롭고 마법적(Marriage is a mysterious, Eli. Mysterious and magical 59) 힘을 갖고 있다.

『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모든 갈등은 "총합할 수 없는 차이"(non-totalizable difference)의 산물이다.[7] 『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갈등 관계는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들의 이슬람 신앙과 무슬림 관습에 대한 인식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무슬림 관습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는 미국에서의 무슬림들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의 산물이며, '상관적 차이'(변별적 차이, relational difference)의 산물이다. 즉, 같은 무슬림 여성이라도 자리나와 마흐위시가 다르고, 무슬림 남성이라도 전통을 고수하는 아프잘과 개종한 백인 엘리가 다르고, 더 이상 미국에 사는 무슬림이 아니라 미국적 삶의 방식을 따르는 무슬림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리나와 엘리가 다르다.『본질과 인공』에 나타난 다양한 무슬림들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의 체계가 역사/지역/입장/상황/인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항대립 구조는『본질과 인공』의 등장인물들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특히 '미국에 사는 무슬림'과 '무슬림 미국인'의 차이는 무슬림들이 미국에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 어떤 구조적 변화와 갈등 해소나 미래 지향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자기 삶의 규범을 유지하고 자기 동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이항 대립적 차이는 미국에서 소수자 혹은 타자로서의 삶에 내적 질서와 내적 조건을 바꾸어가는 과정을 설명 못한다. 즉, 차이는

---

7) Slavoj Žežek,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Verso Books, 2012, p. 87.

의미를 온전히 지시하지 못한다.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무슬림 미국인이 되기 위해 더 이상 세속주의와 동화주의를 추종할 수 없는 사회적 배경에서, 네 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무슬림 미국인으로서 타자의 주체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미국인으로서 열린 자기 동일성으로 안내할 새로운 출구를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자리나는 소설쓰기를 통해 미국 내 무슬림들의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여 기존의 내적 질서와 내적 조건을 바꾸어 보려는 야심찬 시도를 한다.

3. 자리나의 소설쓰기에 나타난 전복과 극복의 내러티브

자리나는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질과 인공』의 등장인물들은 '미국에 사는 무슬림'과 '무슬림 미국'이라는 경계 짓기와 경계 넘나들기라는 극적 행동을 하면서 개인적 심리와 정체성, 특이성, 주체성의 문제로 고군분투한다.

무슬림 관습 때문에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자리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공동체의 악령과 동시에 황홀감과도 싸울 자유를 주장하며 전통 이슬람주의자 아프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설쓰기를 강행한다. 무슬림 소수 민족 작가 자리나는 이슬람 전통과 무슬림 관습에 대한 칭송의 의도 없이 그리고 비판의 의도 없이 자신이 누구이고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서사 형식으로 풀어낸다. 악타르가 한 인터뷰에서 "특정 방식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면 작가로서의 소명감은 물론이거니와 관객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다(Unfortunately, I lose any credibility as an artist, not only with my audience but with myself, if I cater to a

political ideology one way or the other)라고 밝혔듯이,[8] 자리나는 이슬람을 재현하는 정치학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희곡『본질과 인공』의 극작가 악타르와 소설『본질과 인공』의 작가 자리나는 무슬림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재현의 정치학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재현의 정치학에서 자유로워진 자리나는 무함마드를 소설 주인공으로 하여 그를 깊은 내면의 자기 성찰과 갈등을 겪는 인물로 재현한다. 자리나는 무함마드에게 "꾸란에 묘사된 인물보다 더 복잡하고 진실한 이미지"(a more complex and truthful image than the figure depicted in the Quran)를 부여한다.[9] 자리나가 재현하는 무함마드는 엘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존경해왔던 무함마드와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엘리는 자리나의 소설에서 무함마드에 대한 원망을 읽어 내고, 전통 이슬람주의자는 물론이거니와 개종한 백인 무슬림과 젊은 무슬림들조차도 자리나의 무함마드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 한다.

> 자리나: 나는 무함마드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신앙이 여성들에게 한 걸 미워해요. 그의 관대함이나 선함에 관한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를 숨기고 지우기 위해 하나의 변명으로 사용된 다른 게 있어요. 베일은 정말 압권이에요.
>
> Zarina: I don't hate him. I hate what the faith does to women. For every story about his generosity or his goodness, there's another that's used as an excuse to hide us. Erase us. And the story of the veil takes the cake. (50)

---

8) Ayad Akhtar, op. cit, p. 98.

9) Charles, Isherwood, "The Shadow of the Patriarch: '*The Who & the What*' Examines Faith and Family," *The New York Times* (June 17), 2014.

엘리: 당신이 쓴 소설이 싫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갈등 겪고 있는 거 안보여요? 내 말인 즉은, 진정한 예술은 과연 어떠해야하는 가에 대한 거예요?

Eli: I don't hate it. Can't you see I'm conflicted? I mean-Isn't that what good art is supposed to do? (51)

자리나는 "아버지께서 저를 억눌러 개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You covered me up, Dad. You erased me. 79)며, 무슬림 전통을 고수하는 아버지가 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히잡을 씌웠다고 주장한다. 자리나의 주장은 히잡 착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레퍼토리인 '억압', '성차별', '극단주의', 여성 공동체의 '분열'과 유사하다.[10]

반면, 아프잘은 자리나의 소설을 읽고 무슬림 가족 구성원 모두 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무슬림 가정이 붕괴될 위험을 감지한다. 아프잘은 예언가 무함마드를 외설스런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든 자리나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의 소설을 쓰도록 방관한 마흐위시와 엘리도 함께 힐책한다. 마흐위시는 자리나가 지난 몇 년간 성 정치학 소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자리나의 소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프잘은 무슬림 가정에서 남녀 사이에 왜 정치학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프잘은 두 딸들에게 히잡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자리나의 무슬림 관습의 해체와 전복 작업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흐위시는 자리나의 소설을 읽고 더렵혀진 것 같아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히잡을 쓰고 싶어 졌다며 소설을 은유적 단계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아프잘과 마흐위시가 인식하는 히잡

10) A Wing & M Smith, "Critical Race Feminism Lifts and the Veil?: Muslim Women, France, and the Headscarf Ba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aw Review* 39(3), 2007, pp. 758-769.

은 자리나가 생각하는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히잡은 "서구에 대항하는 일종의 무기"[11]이며 "다차원적 종교상징으로서 신앙의 선택"[12]이다.

히잡을 소재로 한 자리나의 소설을 계기로 미국 내 다양한 무슬림을 재현하는 네 명의 등장인물들은 이슬람 신앙에 대한 성토장에 뛰어든다. 이슬람 전통을 고수하는 아프잘, 표면적으로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지만 요령껏 세속적 삶을 기웃거리는 마흐위시, 이슬람으로 개종한 백인 무슬림 엘리, 무슬림 미국인으로 이슬람 전통과 관습의 기원을 파헤쳐서 오늘날의 이슬람을 직시하려는 자리나는 이슬람 신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이면서 무슬림 관습의 경계를 그린다. 성과 결혼 관습을 매개로 시작한 자리나의 전복 작업은 미국 내 무슬림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유의 경계를 넘고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경계를 넘는 무슬림 미국인의 특이성을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리나는 다인종 국가 공동체 미국에서 무슬림은 "언제나 타자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하는"(always looking at one's self through the eyes of others)[13] 실존적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무슬림 가정에서도 이슬람 관습이 안과 밖에서 왜곡되었다고 본다. 자리나는 무슬림 미국인의 특이성으로 미국 내 소수자로서의 무슬림에 대한 이전과 다른 사유 방식과 존재 방식의 가능성을 제기하려고 한다. 자리나는 남녀 문제와 결혼 문제에 집중하여 소설쓰기라는 은유적 단계에서 새로운 사유 방식과 존재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한다.

---

11) N. Hijab, *Womanpower: The Arab Debate on Women at Work,* Cambridge UP, 1988, p. 55.

12) S, Iqbal, *Woman and Islamic Law*, Adam Publisher, 2004, pp. 34-36.

13) W. E. Du Bois, "Of Our Spiritual Strivings," *The Souls of Black Folk*, Dover Publications Inc, 1994, p. 2.

하지만, 아프잘은 자리나의 소설에 묘사된 신과 예언자를 은유적 단계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소설에 묘사된 예언가의 욕망에 대한 묘사를 신성모독을 느끼고 자리나의 소설을 외설의 극치라며 무슬림 가정에 '암적인 존재'라고 힐책한다. 아프잘은 자리나가 이런 소설을 쓰도록 내버려둔 엘리는 진정한 무슬림 남자가 아니라고 비난한다. 엘리는 무슬림도 아니고 이맘도 아니며 "엘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기"(Bloody fake is what you are! 79)라고 비난한다. 결국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에 이슬람 전통과 관습에 대한 성토의 장을 마련한다.

엘리: 우리는 허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프잘: 나는 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
엘리: 아니요, 모르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님의 딸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잘: 신성모독이야.
엘리: 아뇨, 증언입니다.
엘리: 그래요. 맞아요. 자리나의 용기는 내가 아버님의 딸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들 중의 하나입니다.

Eli: And we're worshipping a fiction! We have no interest in knowing who he really was …
Afzal: I know who he was!
Eli: No, you don't! None of us do! And all your daughter is doing-
Afzal: Blasphemy.
Eli: No, testimony.
Eli: That's it. That's all it is. And her courage is one of the many reasons I'm so in love with your daughter. (82)

자리나는 관습 때문에 마흐위시가 성적으로 왜곡되고 굴종적인 삶을 살았다고 폭로한다. 이에 맞서 마흐위시는 무슬림 관습에 자

유로운 자리나가 그 어떤 남자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위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 폭로한다. 온전한 무슬림 가정을 꾸리려는 아프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딸들은 무슬림 관습에 근거한 정상적 남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왜곡된 삶을 살았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아프잘은 잘못된 모든 것을 되돌리려고 한다. 아프잘은 마흐위시가 억압과 위선에게 해방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하고, 자리나에게는 불경한 소설을 없애버리라고 강요한다. 자리나의 소설을 계기로 마련된 성토의 장은 결국 미국에서 무슬림 관습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자리나는 전통 이슬람주의자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국적 삶에 익숙한 무슬림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백인 무슬림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새로운 차원의 내러티브로써 신앙적 차원이나 관습적 차원 혹은 윤리적 차원이 개방된 사건의 순간을 포착한다. 자리나는 오랜 시간 전통과 관습의 이름으로 전승된 것의 흔적을 찾아 나서서, 이슬람 전통과 무슬림 관습의 '설정된 기원'과 '추구된 의미'를 전복하려고 한다. 즉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시간의 빗장을 열고"(The time is out of joint)[14] 시간에 구멍을 열어서 다양한 차이가 가져온 미국 내 무슬림들의 혼란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현재 시간에 미래를 향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무슬림 생활 관습의 흔적을 소설의 내러티브로 하는 작중 의도의 원점에는 다름 아닌 예언가 무함마드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리나는 무함마드를 소설 주인공으로 해서 신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 차원에서 무함마드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 이러한 소설쓰기는 자리나에게 엄청난 '자아의 시련'을 가져온다. 자

14) William Shakespeare, *Hamlet,* Simon & Schuster, 1992, Act 1, Sc 5, L. 188.

리나는 무슬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판단을 내려야할 때, 미국에 사는 무슬림이 아니라 무슬림 미국인으로 가는 실천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할 때, 전통 이슬람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할 때, 존재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엄청난 자아의 시련을 겪고 '한계상황'에 봉착한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기에 고난과 시련의 길이다. 자리나는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고, 동생과의 불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남편과의 불화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슬림 공동체에서 사회성을 잃게 하는 등 추방에 버금가는 피해를 준다.

자리나의 소설 발표 이후, 이들 삶에는 엄청난 시련이 닥친다. 아프잘은 무슬림을 기반으로 한 택시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엘리는 모스크의 이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 자리나: 죄송해요.
> 아프잘: 진심이니?
> 자리나: 네. 제가 한 일로 인해 아버지께서 고통 겪어야 했어요. 제가 쓴 소설 때문에.
> 아프잘: 내가 걱정하는 건 바로 너야. 나는 네가 안정되고 행복하길 기도한다.
>
> Zarina: I'm Sorry.
> Afzal: Are you?
> Zarina: Yes. That you had to suffer because of something I did. Something I wrote.
> Afzal: You are what I care about. (88-89)

소설쓰기라는 결정과 소설 출간이라는 판단은 옳고 그름과 같은 양자택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 불가능성'(undecidability)의 시련을 가져온다. 결정 불가능성의 시련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자리나가 시간의 빗장을 열고 무슬

림 미국인의 정체성과 특이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무슬림 관습의 균열이 비롯된 지점을 찾아나서는 것은 『본질과 인공』의 휘브리스(hybris)이며 창조적 행동이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예언가 무함마드와 무슬림 관습에 대한 전복과 극복의 내러티브이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무슬림 관습의 전제를 뒤집으려는 결단이다. 자리나의 결단은 모든 차이에 저항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리나는 반항과 분노의 감정을 소설쓰기로 전환하고, 소설쓰기를 통해 무슬림 미국인의 주체성과 특이성(개별화 individuation)으로 타자의 주체성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자리나는 인간적으로 예언가 무함마드에 다가가서 무슬림 관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논박한다. 자리나는 예언가 무함마드를 신앙의 무대가 아닌 재현의 무대에 올린다. 자리나가 시도하는 무함마드에 대한 각색은 기존의 이슬람 사유전체, 무슬림 관습의 경계를 넘어서서 무슬림 미국인의 새로운 열린 정체성과 타자의 주체성의 대안을 찾는 작업이다. 자리나는 무함마드를 인격화하여 신성에 갇힌 무함마드를 해방시킴으로써 무슬림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출구를 찾으려고 한다. 즉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무슬림 미국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다.

4. 나오며: 차이 너머 차연에서의 인종 상상계

희곡 『본질과 인공』과 희곡 작품 속의 소설 『본질과 인공』은 서로 다른 작가의 서로 다른 작품으로 순차적 기승전결이나 인과관계의 구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이다. 극작가 악타르가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와 교차했듯이, 드라마 속 소설가 자리나는 무슬림 관습의 기원과 미국 내 무슬림 관습의 현전을 교

차한다. 이들의 교차는 무슬림 관습의 기원을 찾아 나서면서 동시에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타자의 열린 정체성과 특이성과 주체성에 대한 현전의 경계 그리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들의 경계 그리기는 경계 구축이 아니라 경계 너머를 상상한다.

자리나가 "존재하지 않는 기원의 흔적"(The trace itself does not exist)[15]을 찾아 나서서 현전에서 그린 울타리(체계나 구조를 조성)는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소수자의 부상과 미국 내 새로운 타자의 부상을 가시화 한다. 이때의 타자는 실제로 어떤 객관적 자기 동일성으로 정의될 수 없고, 출신이나 인종이나 신앙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결정불가능한 자이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로 가시화된 결정불가능한 자의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경험'은 즉 자리나가 소설쓰기로 경험한 현실은 "경험의 조건"(the condition of experience)이며 "현전의 결핍"(privation of presence)을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현전의 조건"(the condition of presence)이다.[16] 자리나는 소설쓰기를 통해 프로그램화되고 매뉴얼화된 것의 전제를 뒤집어 새로운 타자의 부상을 고한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기원의 의심과 일맥상통한다. 데리다는 어떠한 의미나 진실도 결코 절대적이거나 영원할 수 없으며 그것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지식의 조건들에 의해 규정된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차연'(différance, 디페랑스)을 찾아나서는 해체작업이다.[17] 해체(해체 구성 deconstruction)는 당연시 되는 행위들 속에 숨겨진 가정들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deconstruction'의 'de'는 파괴라는 부정적 의

15) Jacques Derrida, op. cit, p. 167.

16) Ibid., p. 166.

17) 불어 동사 différer는 '차이나다'와 '지연시키다'라는 뜻이지만, différer의 명사형 différence는 '차이'의 뜻만 있다. 데리다는 '차이'와 '지연' 모두를 담아내려고 différence의 e를 a로 고쳐서 différance(디페랑스, 차연)라는 명사를 새로이 만든다.

미가 아니라 방향 전환(변동)의 의미이다. 그리고 해체는 은폐된 억압과 배제들을 드러내어 텍스트의 기초를 흔드는 작업이다. 자리나는 기원의 맹목적 해체가 아니라 이슬람의 경계를 넘고, 미국 내 인종주의의 경계를 넘는다. 자리나는 미국 내 새로이 부상한 소수자로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 무슬림 전통에서 벗어나는 대가를 치르면서 새로운 미래로의 출구를 연다.

자리나는 소설 출간으로 시련을 겪지만 자리나는 경계 그리기에 멈추지 않고 그 경계에 작은 출구를 낸다. 그 출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출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차연은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개념적 과정과 개념적 체계 일반의 가능성이다. 자리나의 차이 너머의 차연은 의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정초한다. 자리나는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허가"(gave them permission to ask questions 90)라는 질문을 하고 회의 할 수 있는 빗장을 열어 놓았다. 자리나의 소설쓰기는 문학이 그러하듯 언어 자체의 자기 생산적인 자기 조형 능력을 갖고 있다. 의미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자리나의 소설쓰기이다. 자리나는 소설쓰기를 통해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사유 지점, 미국 내 무슬림 관습의 경계 너머를 상상한다.

소수 민족 국가 공동체인 미국에서 새로운 소수자로 부상한 무슬림 미국인이라는 타자는 이슬람 사유를 경계 짓는다. 경계는 차단하는 기능도 있지만, 경계는 어떤 것이 태어나서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과 형성의 원리이기도 하다. 자리나는 그 어떤 무슬림들이 의문시 하지 않았던 것을 내러티브로 형상화함으로써 무슬림 관습의 안과 밖을 경계 짓는 울타리를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출구를 찾는다. 울타리 바깥으로의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출구는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는 곳 즉 차연의 가능성, 새로운 인종계 상상계로의 빗장을 연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Akhtar, Ayad. *The Who and the What*. New York: Back Bay Books, 2014.

2. 논문 및 신문 기사

Akhtar, Ayad. "The Particular and the Universal: An Interview with Ayad Akhtar."*The Who and the What*. New York: Back Bay Books, 2014, pp. 95–101.

Du Bois, W. E. "Of Our Spiritual Strivings." *The Souls of Black Folk*.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94, pp. 1–10.

Isherwood, Charles. "The Shadow of the Patriarch: '*The Who & the What*' Examines Faith and Family." *The New York Times*. June 17, 2014.

Wing, A., & Smith, M. "Critical Race Feminism Lifts and the Veil?: Muslim Women, France, and the Headscarf Ba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aw Review*. 39(3). 2007, pp. 743–785.

3. 단행본

Derria, Jacques. *Of Grammatolog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67.

Hijab, N. *Womanpower: The Arab Debate on Women at Work*. Cambridge: Cambridge UP, 1988.

Iqbal, S. *Woman and Islamic Law*. New Delhi: Adam Publisher, 2004.

Shakespeare, William. *Hamlet*. New York: Simon & Schuster, 1992.

_____. *The Taming of the Shrew*. New York: Simon & Schuster, 2004.

Žežek, Slavoj.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London: Verso Books, 2012.

(투고일: 2015. 11.3 심사완료일: 2015. 12.9 게재확정일: 2015. 12.11)

홍은숙
소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전화번호: 010-7517-6468
전자우편: eshong@dongguk.ac.kr

[Abstract]

Différence and Différance in Ayad Akhtar's *The Who and the What*

Hong, Eun-Sook

Muslim American playwright Ayad Akhtar declares that he will not worry about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narrating the Muslim customs in America. The problematic character in *The Who and the What* is Muslim American, who is the other of Americans as well as the other of Muslims in America. This paper explains the process of structural changes from Muslim in America toward Muslim American by drawing on the notions of différence and différance. Crossing over the gender-politics of Shakespeare's *The Taming of the Shrew* and that of Muslim Americans, Akhtar explains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as a relational difference to maintain their own self-identities.

Searching for the origin of the custom and portraying the Prophet as a real man with an attempt to humanize Muhammad, Zarina unveils the cover of the tradition. Zarina probes contradictions that make Muslim Americans who they really are. Crossing over the origin of the Muslim custom and the presence of the Muslim other, Zarina draws a boundary of Muslim Americans' singularity. Her boundary is not another construction but deconstruction, which opens the way to a new paradigm for the new ethnic imaginary and the possibility of différance.

Key words: Ayad Akhtar, différance, différence, identity, the Muslim other, singularity, *The Who and the What*